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13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창세기 41장)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이집트.
그런데 하루는 파라오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찹찹하다, 찹찹해... 불길해서 견딜수가 없구나!
내 꿈을 속 시원히 풀어줄 자가
이 위대한 이집트 왕국에 단 한 명도 없단 말이나!”**

왕의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신하들은
나라 곳곳에 수소문을 했어요.
하지만 가장 지혜고롭고 신통방통하다는 마술사들도
파라오의 꿈을 듣고 나서는 말문이 막힐 뿐이었죠.

**“거, 너무도 요상한 꿈을 꾸셔서 헤헤헤..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대신 비둘기 마술을
보여드릴까요? 헤헤.”**

**“마술은 무슨 마술이냐?
네 눈에는 내가 지금 마술이나 보면서
희희덕거릴 기분으로 보이느냐?
여보라, 저 놈을 당장 내쫓아라!”**

**모든 신하들이 어쩔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왕의 술을 만드는 신하가 앞으로 나왔어요.**

**“파라오시여, 그러고보니 제가 전에 감옥에 있을 때
어떤 노예를 만난 기억이 납니다.
그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해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사람이 매우 지혜로워서
저의 이상한 꿈을 정확히 풀어주었나이다.”**

**그 말을 들은 파라오는 사람을 보내
요셉을 데려오게 했어요.
몇년동안 감옥신세였던 요셉은 몸도
아위었고 누추한 행색이었죠.
신하들은 요셉의 수염을 깎게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서 파라오 앞에 데려갔답니다.**

**“네가 요셉이구나.
듣자하니 꿈풀이에 재주가 있다던데
내가 꾸는 꿈을 풀어줄 수 있겠는가?”**

파라오의 질문에 요셉이 대답했어요.

**“파라오시여, 저는 꿈을 해몽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하나님이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풀지 못할 꿈이 없습니다.”**

**파라오는 내심 못미더웠지만
이내 요셉에게 꿈얘기를 해주었어요.**

**“꿈에서 나는 나일강변을 서성이고 있었느니라.
그런데 갑자기 강 속에서 토슬토슬하게 살찐
소 일곱마리가 나오는게 아니겠는가?
그 소들이 강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또 강 속에서 다른 소 일곱 마리가 올라왔느니라.**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소들은 하나같이
몸이 바비직 야위어서 뼈가 보일정도였다네.
그리고 가장 이상한 부분은 이제부터다.
그 야윈 소 일곱 마리가 갑자기 살찐 소
일곱 마리를 잡아먹지 않겠느냐?
그 모습이 너무나 불길하고 찹찹하여
머리에서 지금까지도 떨쳐낼 수가 없구나.”**

**걱정스러운 표정의 파라오와는 달리 요셉은 침착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주기 시작했죠.**

**“파라오시여,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파라오께 앞으로 이집트에
일어날 일을 꿈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살진 소 일곱 마리와 야윈 소 일곱 마리는
모두 7년의 시간을 뜻합니다.**

**살진 소 일곱 마리가 먼저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이집트 땅에 7년동안 풍년이
이어질 것을 보여주지요.”**

**“하지만, 그 뒤에 야윈 소 일곱 마리가 나온 것은
풍년이 끝난 뒤 7년동안 엄청난 기근이
찾아올 것을 보여줍니다.**

**그 기근이 너무나도 심해서 땅에서는 곡식 한 알
자라지 않을 것이며고 사람들은 앞선 7년의 풍년의
기간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셉의 꿈풀이를 들은 파라오는 깜짝 놀랐어요.

**“뭐, 뭐라? 아니, 그러면 내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어서 말해보거라!”**

요셉이 대답했어요.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요.
파라오께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한 명 뽑으셔서
곡식을 관리하게 하셔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동안 풍년이 이어질 때
이집트 땅에서 나는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들이십시오.
그 곡식들을 잘 저장해두었다가 뒤이어 7년의 기근이 찾아올 때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요셉의 대답은 확신으로 가득차있었고
이를 들은 파라오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지금까지 이토록 똑똑하고 당찬 사람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네, 네 말이 옳다. 듣던대로 참으로 지혜로운 자로구나.
여보라, 이집트의 운명이 달린 이 중요한 일을
내가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여기 있는 이 노예보다 그 일을 잘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다.
나는 오늘부터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할 것이다.
이제 이집트 땅에 나를 배개고는 요셉보다 높은 자가 없을 것이며
요셉의 명령에 따라 곡식을 거두고
모든 나랏일을 요셉에게 맡길 것이다. 다들 알겠느냐?”**

파라오는 손에서 자신의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직접 끼워주었어요.
노예 신세였던 요셉이 이집트 왕국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가 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여러분의 예상대로 요셉의 꿈풀이는 정확했어요!
7년동안 풍년이 이어졌지만 그 뒤로 7년은 끔찍한 시간이었죠.
주변 나라들은 먹을 식량이 없어 모두가 굶주렸지만
이집트만큼은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요셉의 말대로 곡식을 저장해두었으니까요.

**“이 무시무시한 가뭄에도 이집트 사람들은
다 배불리 먹고 있다.
거기에 아주 지혜로운 총리가 있어서
그 덕에 지금도 양식이 넘친다는구만.”**

**이집트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졌고
주변 나라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셉의 식구들이 있는 가나안 땅에도
끔찍한 기근은 찾아왔죠.**

**하루 아침에 총리가 된 요셉!
과연 고향에서 굶주리고 있는 가족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